

# 국내파트 존치 여부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 국정원 개혁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

여 “안보위해 당면...대북 정보수집 강화해야”

야 “정치개입 빌미...전면폐지·수사권 이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외부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개혁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은 각자 발제를 통해 국정원 국내파트 존치 여부, 방어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선 국정원 국내파트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안보를 위해 필수라며 대북 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 강화 유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측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국내 동조세력의 협조로 괴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국내 부역세력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안보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선행하는 절대 명제인데 정치개입 금지론 때문에 안보수호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거들었다.

이들은 “주요 간첩단을 국정원이 검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을 축소하고 예산을 통제해 해외에서 정보나 수집하는 관공격으로 만드는 것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치 개입의 빌미를 준다며 국정원 국내파트 전면 폐지와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 매달리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해외·대북정보로 한정해야 하며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도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는 대공수사권과 관련,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권 분리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북 방어심리전 활동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장 변호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허용될 수 없고, 국정원법

도 국정원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받아들여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주필은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며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국정원의 대응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는 17일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친노세력 금부상 고민 깊어진 김한길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정치권 전면에 다시 나서면서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의원이 대권 재도전을 시사하는 가 하면 대선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세 걸음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으며 김 대표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던 여권이 문 의원과 친노를 향해 파상공격을 하면서 대역전선이 흐트러졌다. 대결 구도가 ‘친박(친박근혜)대 친노’로 가면서 민주당의 구도에서 살머시 빠진 형국이 다. 그렇지 않아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내부 위환에 시달리고 있다.

을 빛자 적잖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이 가까스로 수그러들 만하자 이번에는 ‘친노(발) 약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은 ‘외부인’이긴 하지만, 친노 내에서 갖는 그의 상징성으로 인해 민주당이 ‘유탄’을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 주말 일체의 외부 일정 없이 정국 구상에 들어간 것도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도부 일각에선 문 의원과 친노 진영의 최근 행보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 흔들기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 친노세력을 심어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호남의 중진 의원은 16일 “친노의 ‘반성 없는’, ‘분별 없는’ 정치활동은 친노세력의 결집을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 민주당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예산안 연내처리 본회의 3회 개최 합의

여야는 1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오는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도 조속히 합의해 금년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활성화 등 민생 관련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안이 지연돼 국정과제가 초래되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근혜표 예산을 무조건 들어내겠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예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대통령 “한반도 정세·안보상황 매우 엄중”

### 외교안보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

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 상황을 예

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의 협

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공유와 대북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현 정세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고한 국민적 지지 하에 강력한 대응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지방선거 야권연대 안돼”

“민주당·안신당 정당당당하게 국민 평가 받아야”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국민은 민주당도, ‘안철수 신당’도, 정당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며 또다시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전면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송년 후원의 밤’ 행사에 앞서 배포한 송년 메시지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혹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단일화, 연대에 의지해 치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이어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선거를 미봉하기보다 자기 혁신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편법으로 나눠 가지면 지방선거는 이길지 모르나 다음 정권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철수 현상은 정치불신과 좌절의 산물로, 여당과 보수세력

보다 야량이 더 큰 표적일지 모른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이런 현실 앞에 빠져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현실론에 쉽게 물들고 길들여지거나 기존 정치의 처리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존의 야당 지지기반에 머물지 말고 의견을 넓혀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나가기로 기대한다. 새 정치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 고문은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 장면에서 관용의 정치,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의 힘을 배웠다”며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자세였다면 정국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다당제 정당구조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기동

# 제일 오피스텔 “금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양동/하천쪽, 전체 올수리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5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500만원

회사 사정상 매매함

H.010-4667-9300

경매

- ▶ 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 비법 배우실 분! 1,200만원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엔피엘/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H.010-3605-5000